“소설의 허구 방식이 글쓰기 치유에 도움”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이미란 작가 ‘너의 경우’ 펴내
5편 모두 2인칭 시점으로 서사화…형식 미학 추구
“소설은 인간의 삶 자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력”

“소설 쓰기도 치유효과가 있는 글쓰기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의식 차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이 되니까요. 다시 말해 자기 삶에 드리워져 있는 특정한 트라우마를 서사라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림, 음악, 원예 등 다양한 장르를 매개로 한 치료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일상화됐다. 문화와 예술은 그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위로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

요즘은 글쓰기 치유에 대해 관심을 갖는 독자들이 적지 않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 창작을 매개로 상처를 객관화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신춘문예(1983)와 서울 신문 신춘문예(1985)로 등단한 이미란 작가(전남대 국문과 교수)가 이번에 펴낸 창작집 ‘너의 경우’(예서)는 ‘소설 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창작 과정을 연계한 글쓰기 치유는 수다한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정치하게 응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설집을 받고 책을 온전히 읽지 못했기에 한동안 마음이 무겁던 참이었다. 작가가 2인칭의 작품을 썼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소설 형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 때마침 작가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 길게는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작품 전반의 내용을 비롯해 소설 쓰기와 치유의 가능성 위주로 대화를 나누었다.

“전반적인 이번 소설의 주제는 포스트 휴먼과 글쓰기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방점을 두자면 후자 쪽이 아닐까 싶네요.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글쓰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소설은 허구의 방식을 차용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예술적이며 치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소설을 매개로 한 글쓰기 치유는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을 이야기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독자와 공유하는 것이 치유의 과정인데, 그러나 분명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이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창작자는 소설에서도 이를 숨기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함께 창작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적하기 마련이다. ‘개연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일종의 “‘서사의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이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어차피 허구의 산물입니다. 독자들은 그 이야기를 허구의 서사물로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깔려 있구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사의 구멍’을 메꾸는 과정을 통해 자기 삶속에서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납득되면, 혹여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소설 표제작 ‘너의 경우’는 치유적 글쓰기로서의 소설 창작이 주제다. 창작의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한 학생 ‘안’의 스토리를 내부 이야기로 제시하며 또 다른 학생인 ‘너’가 소설 창작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나’가 ‘너’의 서사적 진실을 독려하고 추적해 가는 방식을 모티브로 삼았다.

이밖에 ‘일박 이일’, ‘진실’, ‘거짓말’ 등도 이인칭 ‘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품을 읽는 이를 수화자처럼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창작의 방식은, 독자에게 직접적인 말 걸기라는 효과를 낳는다. 마치 소설 속 화자가 직접적으로 독자를 향해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작가는 “대학 현장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다보니 소설 창작에 소홀했다”며 “언젠가는 본업인 소설가로 돌아가 창작에 매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소설은 인간의 삶 자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아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열망이니까요. 특히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욕망을 담아내는 데 소설만큼 적절한 ‘그릇’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교수는 글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많다며 기대를 했다. 그러나 옛날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전에는 창작의 관점에서 조언을 하면 학생들이 수용을 하지만, 오늘의 학생들은 자신의 방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했다. 또한 장르 자체도 전통적인 소설에서 장르 소설, 판타지, SF로 확장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창작의 관점이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동안 소설을 쓰지 못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왕 창작집을 냈으니 앞으로는 본업인 창작에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작가는 ‘꽃의 연원’, ‘너를 찾다’ 등 소설집과 ‘소설 창작 강의’ 등의 저서를 펴냈으며 광주문학상(1997년)과 광주일보문학상(2009)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4일 예술관광활성화 워크숍
광주관광발전포럼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관광발전포럼 예술관광활성화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예술관광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관광발전포럼, 광주시, 광주관광재단의 주최로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으로는 ▲끊임없는 여행객을 불러들이는 예술여행 비즈니스 전략(강신겸 위원장) ▲관광객을 위한 공연기획(광주문화예술회관 양승수 공연기획과장) ▲예술여행자원을 활용한 도시홍보 전략(동구예술여행센터 임석 센터장) ▲예술여행 전문인력 양성방안(쥬스컴퍼니 이한호 대표)등이며, 이에 대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광주관광재단 유튜브 ‘광주관광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 18일 전일빌딩에서 개최 예정인 광주관광활성화 컨퍼런스를 앞두고 각 산업분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리는 광주관광발전포럼 분과위원회 워크숍은 지난 9월 30일 콘텐츠개발위원회를 시작으로 관광브랜드위원회(15일), MICE산업위원회(19일) 워크숍이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中 원나라 해외무역 통해
신안해저문화재 조명
국립광주박물관 오늘 학술대회

중국 원나라의 해외 무역을 토대로 신안해저문화재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13일 ‘원나라의 대외 교류와 무역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저명한 연구자가 참여해 신안선 출수품과 원나라 대외 무역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광주박물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먼저 1주제 ‘원나라의 대외 무역과 신안해저문화재’에서는 중국 경덕진시도자고고연구소 지앙 지앤신 소장이 경덕진 낙마교요에서 출토된 원대 백자를 소개한다. 이어서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한성욱 이사장이 ‘원 제국과 고려 청자의 대외 교역’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병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물과학팀장이 신안선 출수 자단목을 분류·정리한 자료를 공개한다.

2주제 ‘송·원—가마쿠라의 교류와 무역품’에서는 신안해저문화재를 통해 중·일 무역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다. 일본 센뉴지 학예원 니시타니 이사오가 ‘13·14세기 동아시아 해역을 잇는 보타산 관음신앙과 그 도상’을 주제로 신안선에서 출수된 소형금동불상과 중국 보타산의 관음신앙과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는 신안선에서 출수된 ‘축(軸)’에 주목해 ‘14세기 일본에 중국회화 수용’을 발표한다. 문의 062-570-7809. /박성천 기자 skypark@

깊어가는 가을 예술의 섬 장도서 재즈 선율에 취하다
전남문화재단·광주문화재단
15~16일 ‘재즈 페스티벌’

피아니스트 앤디킴

전남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양 지역의 문화 상생을 위해 광주·전남문화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5~16일 여수 예술의 섬 장도에서 제7회 문화주간 행사로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기간 중에는 전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블루아트페스타도 함께 열린다.

15일(오후 4시~오후 6시 20분) 공연에서는 재즈피아니스트 앤디킴이 ‘블루 보사노바’, ‘미스티’등을 연주하며 다양한 연주 스타일을 한데 모아 서정적인 분위기로 음악을 그려내는 무드리스트 팀이 스윙, 라틴, 모던재즈, 펑크스타일 음악을 선보인다.

16일(오후 2시~5시10분) 펼쳐지는 무대에서는 아트 플래닛 팀이 ‘컴포메이션’, ‘워크 톨’ 등의 레퍼토리를 통해 정통 스탠다드의 감미로운 선율과 멤버 개개인의 개성이 발휘되는 재즈 연주의 묘미를 선사한다.

재즈와 국악의 콜라보 무대도 마련된다. ‘쾌지나 칭칭나네’, ‘어느새’, ‘몽금포타령’ 등 기존의 전통민요와 창을 편곡해 재즈로 선보이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통재즈를 21세기 사운드로 구현하고 있는 강환수 뮤직그라운드 팀이 ‘히어로’ 등 재즈 특유의 즉흥연주를 선사한다. 그밖에 애드뮤직 컴퍼니, SWA팀이 참여하며 공연시작 30분 전에는 스윙 탭댄스, 시대별 음악감상, 악기만들기 등 문화예술 체험도 진행된다. 사전예약제. 문의 061-280-5822. /김미은 기자 mekim@

‘네트워크’ 대신 ‘관계망’
‘쉬운 우리말 사전’ 공개

한글문화연대는 공공기관과 언론이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를 대체할 우리말을 모은 ‘쉬운 우리말 사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을 통해 접속하는 쉬운 우리말 사전에서는 외국어 3500여 건을 대신할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가드닝’, ‘1코노미’, ‘네트워크’를 바꿔 부를 말로 ‘생활원예’, ‘1인 경제’, ‘관계망’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한글문화연대는 지난 1~9월 중앙정부가 작성한 보도자료 1만4956건 가운데 어려운 외국어와 로마자 표기가 있는 사례가 51.2%였다고 발표했다.

한글문화연대 관계자는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매달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밑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해 미 패 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의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

(주)K&J컴퍼니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재테크, 신재생에너지 재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

한 국 기 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

송가네 반찬
광주 남구 백운로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써니헤어샵가발
나주시 성북동 4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
전화예약 ☎ 010-3996-0489

동태랑대구랑전문점
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